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한국노년학회지 게재논문의 노인개념과 주제 분석

Review on the Recent Research in Social Gerontology : the Concept of Elderly and Topics in the Articles from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저자 (Authors)	최은영, 김정석 Choi, Eun-Young, Kim, Cheong-Seok
출처 (Source)	사회과학연구 19(1) , 2012.04, 165-185(21 page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19(1) , 2012.04, 165-185(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40614
APA Style	최은영, 김정석 (2012).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19(1), 165-185
이용정보 (Accessed)	동국대학교 175.123.***.116 2020/07/15 14:1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일반논문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 한국노년학회지 게재논문의 '노인'개념과 주제 분석 -

최 은 영**

김 정 석***

I. 문제제기	IV. 연구영역과 주제 분석
II. 연구방법 및 절차	V. 노인과 노년에 내포된 의미와 다양한 분석
III. 노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VI. 맺음말

[요약]

현재 한국사회의 정책기조에는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가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분야의 담론이 최근의 사회노년학 연구물들과 얼마나 조응하고 있는지, 또한 그 조응성이 갖는 학술연구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사회과학분야의 논문 256편을 추출해 연구영역 및 주제별로 구분하는 한편, 노인 혹은 노년에 대한 사전적 전제 등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실험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구영역과 주제 면에서 '사회문제'로서의 노인과 노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정책적 담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편향성이 지배

* 투고일 : '12. 2. 22, 심사일 : '12. 3. 12, 게재확정일 : '12. 3. 30.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사회학과 교수

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인과 노년에 대해 의존적 존재 혹은 사회적 부담으로 전제한 논문이 적지 않지만, 다수는 인구학적 연령규정에 의해 노인과 노년을 접근하고 있다. 정책적 기조와는 달리 학술적 연구에서는 ‘문제적 시각’을 탈피하여 다차원적, 다면적으로 노년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분야에서 노인과 노년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과 전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비판적 성찰을 담은 메타이론적 연구가 부진하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은 세대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연대(solidarity) 등을 강조하는 사회권의 시각에서 노년관련현상과 정책을 조망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더한다.

[주제어] 사회노년학, 노인개념, 연구결과와 정책기조의 불일치, 세대통합, 내용 분석

I. 문제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정책과 사회적 담론은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가 지배적이다. 사회적 수준에서의 인구고령화와 개인적 수준에서의 노화를 극복해야 할 ‘문제(problem)’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담론들은 고령화와 노화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포괄적으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서 이들 담론들은 (그것들이 갖는 일부 현상들에 대한 해석의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과장, 왜곡하거나 심지어 노년의 삶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존’과 ‘부담’으로서의 노인과 노년을 전제하는 고령화위기론, 중년의 건강과 활동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노화라고 주장하는 성공적 노화론 등은 자연스런 노화와 생애주기상의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노년기 삶의 긍정적 내용을 부정(denial)하게 한다(Calasantì, 2001; Powell, 2006). 이들은 교육-노동-은퇴(여가)의 주요활동이 연령대별로 단절된, 고착적인 생애주기를 전제하기도 한다(Achenbaum and Cole, 2007). 이는 노년기를 고정된 정체성(fix identity)의 시기로 규정하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노년학 이론과 그와 연관된 사회정책은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논의들에 대한 성찰적인(reflective) 비판과 수용을 요구한다. 사회적으로 구성된(socially constructed) 개념과 주장들에 대한 전제된 이해관계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Estes 외, 2003). 정경희 외(2006: 35)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던 노화가 20세기에 들어와 쇠퇴, 허약함, 퇴화 등으로 규정되면서 노년기가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차별주의가 강화되는 관계”로 변하고 있음을 비판함으로써 유사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한편, 김정석(2007)은 최근에 확대되기 시작한 성공적 노화 담론이 노인의 욕구변화를 반영한, 노인으로부터 유래한 흐름이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풀어가는 방식의 일환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과연 최근의 사회노년학 연구들은 고령화위기론이나 성공적 노화와 같은 정책적 담론과 얼마나 닮아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내용이다. 그간 노인과 노년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적이고 자성적인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학술 연구물의 내용을 찬찬히 검토함으로써 연구동향의 지형을 살펴보고자한다. 이

작업은 최근 연구물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대별 상황, 연구영역과 주제, 노인이나 노년에 내포된 전제적 함의 등의 집중적인 검토로 구성된다. 비록 시론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나, 이 연구가 노년기와 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지, 사회구성원이자 인생의 단계로서 노년과 노인에 대해 어떠한 학문적·정책적 접근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큰 틀에서 숙고하는 논의를 여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한국노년학회지’에 2001년부터 2010년 제3호까지 게재된 논문이다. ‘한국노년학회지’는 한국에서 노년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다양한 학제와 학문분과의 연구결과물을 수록하고 있다. 특정 학문분과나 분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에 사회노년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논문들이 실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노년학회지’는 그 다학제, 다학문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러 분과와 분야의 논문을 싣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좀 더 가까운 위치를 차지한다.

분석대상의 기점을 2001년으로 삼은 것은 대체로 한국사회에서 ‘고령화위기관’과 ‘성공적 노화’ 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논의된 것이 2000년대부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연구동향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논문이 사회과학분야의 단독저자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공동저자인 경우 제1저자가 사회과학 전공자인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의학, 간호학, 공학, 가정학, 체육학, 보건학, 경영학, 신학, 법학 등의 전공자 논문은 제외하였다. 사회과학에는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신문방송학, 교육학, 인류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심리학 중 신경과학(neuro-science)분야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영어로 작성된 논문도 위의 기준을 따랐으며, 다만 외국인이나 외국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연구자가 준비한 분류틀에 맞추어 논문을 분석하는 과정에는 사회복지전공 박사과정생 1명이 참여하였는데, 교차확인 과정에서 분류가 어렵다고 판단된 5개의 논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 이들 논문들은 생애주기나 노년기에 대한 함

1) 개별적으로 분석과 분류를 모두 완료한 후 신뢰도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1개월 동안 이틀단위로 결과를 점검하고 후속분석을 수행하는 수시체크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의를 찾기 어렵고 노년기가 아닌 시기를 다루거나(예: 청소년과 중년부모의 관계, 중년기 부부, 중년남성), 연령구분 없이 특정 변수(예: 스트레스)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특정인구(예: 탈북자)의 세부문제를 다룬 경우 등이다. 이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추출된 사회과학분야의 분석대상 논문은 총 256편으로, 2001년에 13편, 2002년에 19편, 2003년에 21편, 2004년에 29편, 2005년에 21편, 2006년에 19편, 2007년에 34편, 2008년에 30편, 2009년에 48편, 2010년 3호까지 22편 등이다. 이 중 단독저자의 논문은 111편이고, 나머지 145편은 2인 이상의 저자가 작성한 논문이었다.

연구자가 ‘노인’이나 ‘노년’ 개념에 내포된 함의를 분류하는 데에는 Walker(1982)가 제시한 의존성개념을 참조하였다. 의존성을 총체적인 부정적 함의로 개념화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존성을 좀 더 분석적으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들은 그 후에도 몇 번 이루어진 바 있다(Fine & Glendinning, 2005 재인용). 예를 들어, Fraser and Gordon(1994)은 경제적 의존성, 사회법률적 의존성, 정치적 의존성, 도덕심리적 의존성의 4가지 세부개념을 제시한 바 있고, Margret Baltes(1996)는 구조적 의존성, 행위적 의존성, 육체적 의존성의 3가지 하위개념으로, Gibson(1998)은 경제적 의존성, 정치적 의존성, 법적 의존성, 심리정서적 의존성의 4가지 하위범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생애주기까지 고려한 Walker(1982)의 개념화가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노년기를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단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류를 위한 개념적 틀로 활용하였다.

Walker(1982)는 노인을 규정해 온 의존성을 5가지로 정리하였다: 생애주기 의존성(life-cycle dependency), 육체적·정신적 의존성(physical or mental dependency), 정치적 의존성(political dependency),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구조적 의존성(structural dependency). 여기서 정치적 의존성과 구조적 의존성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을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파악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여기서는 결국, 생애주기 의존성, 육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경제적 의존성을 채택하고 활용하였다(본 논문에 인용한 참고문헌에는 지면관계상 분석대상 논문을 모두 제시하지 않았고, 사회통합적 혹은 세대교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거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일정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대안적 연구만을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Ⅲ. 노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고 이론도 다양하다. 특히 교과서적인 논의에서는 매우 다양성이 높다. 그러나 ‘노년’이나 ‘노화’라는 단어가 서구사회에서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시되기도 하며, 여러 학문영역에서는 강력한 전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Powell(2006: 4-8)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의 노화”의 문제로 접근한다. 노년을 변화로 보지 않고 쇠락이나 쇠퇴로 보는 것은 학자들의 시각을 협소하게 틀 지우게 된다. 특히 생의학적 모형(bio-medical model)의 영향이 현대사회에서 커지면서 노년과 노화를 보는 시각을 압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년과 노화를 병리학적 문제로 조망하게 만들고, ‘의존’, ‘비정상’, ‘퇴화’로 인식하게 하는 영향을 낳았다.

이렇게 노화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매우 쉽게宿命론적 시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접근은 고령화위기론의 근저에 그 맥이 닿고 있다. 한국의 정책담론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계획」 등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엿보인다. 동 계획에서는 노인비율 증가는 곧 노동력 질의 저하와 소비 위축 및 미래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후세대의 부양부담 급증으로 세대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에 이른다. 노인은 곧 부담이라는 단순한 논리가 그 근저에 작동하고 있다. 노년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거나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조가 아니라, 노인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저축·투자·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활력을 저하시킨다고 전망함으로써, 노인의 비생산성을 전제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가 암시하는 다소 일면적인 시각만을 담고 있는 연구와, 대안적 시각이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사회노년학 연구를 구분하면서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주로 대안적 시각이나 통합적 접근을 중심으로 그 문제의식과 논의의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 담론의 내용은 최근 관련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1. 문제의식의 전환과 다양화

김영숙(2001)은 “노인이라는 개념에 담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규정성,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거나, 노인문제 심각성의 근원이 노인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변동과 세대 간 이해의 부재 및 사회적 차별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양옥남(2001)은 “피동적 의존강화”에 대해 경계하면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사회적 도움은 노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김동일(2001)은 “노인들을 생산의 중심축에서 밀어내어 버렸던 연령 분리의 사회에서 연령통합의 사회로 전환해야”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노년기와 노인에 대한 시각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족가치와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집단의 부양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노인집단은 사회의 ‘문제’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음을 비판한 연구(김주현, 2007)도 이루어졌다. 즉, 특정 담론이 거시적 사회의 변화를 ‘노인’의 문제로 치환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노인을 서비스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학계의 경향”을 비판(권중돈, 2005)한 연구, 현재의 노년층이 “삶 자체를 일하는 것과 동일시하여 삶을 즐기고 음미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연구 및 국가정책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노인들의 건강, 경제, 소외, 가족 간의 문제 등에 치중되어 왔다”고 해석한 연구도 있다(나항진, 2004).

노년기를 부담요인이나 취약성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이루어졌다. “노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과되었다”는 지적(정병은, 2007), “취약노인 위주의 논의는 포괄적으로 노인을 사회에 통합하는 문제를 소홀히 다루게 만든다”는 지적(정병은·이기홍, 2009) 등도 이루어졌다.

특정 학문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 노년기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주로 노화로 인한 인지적, 신체적 능력의 감퇴 혹은 심각한 질병이나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에 대한 것이 많았다”고 지적한 연구(유경·민경환, 2005)도 있었다. 사회노년학 연구가 지나치게 노인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한 데 대한 반성도 이루어졌다. 대다수의 연구가 “노인 연령층 내에서의 다양함(variation)이나 차이점(differentiation)

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여전히 평균값의 차이에 기반”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연구(전해숙·강상경, 2009), 좀 더 나아가 노년의 주체적 인식을 강조한 연구도 있었다. “이제까지 노년학에서 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초점이 아니라, 노인이 아닌 다른 세대의 사람들 혹은 언론매체가 노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주로 초점이 되고 있다. 노인이 아닌 계층이 노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 ‘인식’, ‘고정관념’,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주된 연구의 주제인 것은 문제”(이지영, 2009)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이라는 주제를 세대 간의 관계로 살펴본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신창환(2009)은 “세대 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세대와 복지간의 함수관계에 대한 연구의 장을 열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담론이 노인세대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노인이 될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배문조(2009)는 “노인세대의 급속한 권위상실을 직접 목격한 세대”로서 현재의 중년층을 조망하면서, “현대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고정관념은 자신의 노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큰 장애”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대안적 접근과 관심의 시기별 추이

고정적 담론을 벗어난 대안적 연구라고 판단되는 연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0년대 초기에는 “어느 연령층의 사람도 병이 들거나 무력해지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생애에서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와 보살핌의 필요를 보편적으로 조명한 연구가 있었다(양옥남, 2001).

또한 2000년대 초기에는 조부모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도움을 주는 존재로 조명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사회에는 노년층이 수행하는 많은 원조행위가 있으며, 조부모와의 생활경험이 손자녀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세대 간 상호의존(Generational Interdependence)의 현상에 주목한 연구(이인수, 2001), 노인들을 봉사하는 주체로서 부각시킨 연구(고양곤, 2001), 대학생들 대상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노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음을 밝히고, 노인과 관련된 심리사회가족영역의 교육이 더 필요하며 교과과정 개발을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

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 연구(김수영 외, 2002), 노인을 수동적 존재로서 단순한 수혜자로 보기 보다는, 노인의 선호와 인식을 반영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권현주 외, 2002), 세대 간 유대형성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제언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원영희 외, 2002). 사회적 지원이나 교환의 다면성과 비공식적 지지 제공자로서의 노년기를 강조한 연구(전혜정, 2003)가 있었고, 윤현숙(2003)은 사회적 지원의 세대 간 상호성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활발한 대안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령의 연속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삶이 빈곤해지고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오히려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정서 최적화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고 정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한 연구(유경·민경환, 2005), “세대 간 단절과 분리현상을 막기 위해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를 연구하고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연구(권중돈, 2005), “세대 간 경제적 지원의 잠재성과 현재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을 밝힌 연구(우해봉·윤인진, 2005), “고령자 고용정책에서 연령차별적 논리와 경제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시민권 원리가 필요하며”, “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이가옥·이지영, 2005)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이 시기는 노년기를 취약성 위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길어진 노년기에 정서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며,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정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하고, “노년기에도 다른 연령과 마찬가지로 정적정서를 부정적정서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며 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노년기의 긍정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유경·민경환, 2005), 이미 진행되고 있는 노년에 대한 이미지 고착화 방지를 위해 세대통합 지향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 연구(권중돈, 2005; 최상민·한정란 2007; 이은주·한창완, 2009) 등이 다수 이루어졌다.

“각 개인은 자신의 발달 상태를 조절하고자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이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여부가 성공적 발달 즉,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노화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연속선상에서 해석한 연구(곽지현·이민규, 2006),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도 삶의 목표를 만들어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고자하는 동기는 여전히 강하며, 이러한 동기는 더 높은 만족감과 삶의 질을 추구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분석(곽지현·이민규, 2006)이 이루어졌다. 김주현(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세계가 동질적 세계가 아니라 생산적 활동 참여에 있어서 다른 욕구 및 특성을 보이는 상이한 생활구성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존의 생산적 노년이론은 모든 노인들을 매우 동질적으로 보고 이들 노인들이 현재 조건과 위치에 관계없이 생산적 노년을 추구하기 위해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노인을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삶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포용성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 조명할 수 있음”을 강조한 연구(유희정, 2007),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사회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연구(정병은, 2007), “이질적 노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생애사주체인 그들의 시각에서 삶을 재구성해야 함”을 주장한 연구(양영자, 2007), “노인의 생산성은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생산성과는 구분되지만, 여전히 능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 연구(송인주, 2008), 성공적 노화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관계지향적 vs. 개인중심적), 서구이론의 단순한 적용은 문제임을 지적한 연구(김운정, 2008) 등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후반에는, 성공적 노화 개념을 사용하되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한 연구가 등장한다. 정병은과 이기홍(2009)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생산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활동만 중요한 것은 아니며, 노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만족을 느끼는 관계적 활동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세대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은 여러 세대 혹은 연령 집단이 다른 세대와 시공간을 공유하면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며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서 세대통합 지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연구(나항진, 2009), 노인들의 자신에 대한 가치 및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강선경, 2009)이 있기도 하였다.

노년기에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유경, 2009), 노년기에 부정정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정적정서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점진적인 정적정서와 부정정서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년기에 정서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연구(유경, 2009),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기주도적으로(self-directed)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연습하고, 비효과적인 문제해결기술이 우울의 원인이 됨을 인지하며,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내려는 훈련을 직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노인이 실천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는 주체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연구(윤현숙 외, 2009), “노인차별경험은 개인의 손실이며 궁극에는 국가와 사회의 손실임”을 주장한 연구(신학진, 2010)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IV. 연구영역과 주제분석

추출된 논문의 연구영역이 노년과 다른 세대간의 관계를 주제로 삼았는가, 노인세대내의 특징집단을 다루는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전체 256편 논문 중 세대간 문제를 다룬 논문은 74편(28.9%)이었고, 나머지 182편(71.7%)는 노인 세대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대간 문제를 다룬 논문 중 일부는 세대간의 인식이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세대간 상호교환과 세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은(54.1%) 다른 세대로부터 도움을 받는 수동적 존재 혹은 다른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서의 노인과 노년을 다루고 있다.

노인세대만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절반 정도가 능동적인 존재 혹은 활동자로서의 노인들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세대를 피해자나 취약한 존재로 묘사한 연구는 이보다 조금 낮은 빈도를 보였다(34.1%). 세대 간 연구와 세대내 연구를 전체 종합하여 볼 때, 노인의 수동성과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노인을 다룬 연구는 39.8%에 해당한다(<표 1>에서 (a)와 (b)의 합). 정책담론이 고령화위기에 크게 치우쳐져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표 1> 연구영역 분류

대분류	중분류	편 수	비 율
세대간 문제 연구 74편 (28.9%)	세대간 인식이나 이해관련	21편	28.4%
	노인을 다른 세대로부터 도움받는 존재/부담으로 묘사(a)	40편	54.1%
	세대간 상호교환과 세대통합 접근	7편	9.5%
	노인을 다른 세대에게 도움 주는 존재로 기술	5편	6.8%

	노인을 다른 세대의 가해자로 기술	1편	1.3%
	소 계	74편	100.0%
세대내 특정 집단 연구 182편 (71.1%)	노인을 피해자/수동적 존재/문제 대상/취약존재로 묘사(b)	62편	34.1%
	노인을 능동적 존재/활동자/이용자/결정과 선택 주체로 기술	89편	48.9%
	노인간의 상호성 주목	9편	4.9%
	프로그램 평가나 척도개발 관련	22편	12.1%
	소 계	182편	100.0%

노인세대를 피해자로 접근한 연구들의 구체적인 연구주제(핵심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장 빈번한 주제는 우울(38.7%), 그 다음이 학대(19.3%), 자살생각(14.4%)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스트레스, 차별, 외로움, 빈곤, 폭력 등의 순서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제영역이 ‘노인’ 개념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노인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낳을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찍이 Estes와 동료들(2003: 3-4)은 사회노년학이라는 광의의 맥락을 무시한 채 파편화된 문제중심의 연구가 누적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맥락으로부터 유리된 문제(isolated problems) 중심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연령편견과 노년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가져오게 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표 2>에 나타난 연구의 주제가 노인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노년학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가 이렇게 피해자로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노인 개인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하면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표 2> 연구의 주제

주제 영역	편 수	비 율
우 울	32편	38.7%
학대피해	16편	19.3%
자살생각	12편	14.4%
스트레스	6편	7.2%
차 별	6편	7.2%

외로움	4편	4.8%
빈곤	4편	4.8%
폭력	3편	3.6%
합계	83편	100.0%

* 중복 체크

V. 노인과 노년에 내포된 의미와 다양성 분석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한 ‘노인’이나 ‘노년’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 의미를 분류해 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분석에는 Walker(1982)가 제시한 의존성개념을 참고하여 틀을 마련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논문 256편 중, 단순히 인구학적 연령으로 노인 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62.5%였고, 노인을 육체적 의존성과 동일시한 연구가 20.7%, 심리정서적 의존성을 강조한 연구가 6.3%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환의 한 주체로서 노인을 바라본 연구(3.5%)와 인간생애의 한 단계로 노인을 조명한 연구(1.9%)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상의 분포들은 노년이나 노인의 개념은 대체로 인구학적 연령집단으로 분류되며, 이 외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노인을 단순히 의존적 존재나 사회적 부담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노인’에 내포된 대표적 의미

대표적 의미	편 수	비 율
단순한 인구학적 연령	160	62.5%
육체적으로 허약한 의존적 존재	53	20.7%
심리정서적으로 의존적 존재	16	6.3%
세대간 다양한 교환의 주체 중 하나	9	3.5%
경제적으로 의존적 존재	5	1.9%
인간생애의 한 단계	5	1.9%
사회적 부담	4	1.6%

가족내 지위 혹은 관계	3	1.2%
지역사회 주민	1	0.4%
합 계	256	100.0%

마지막으로 연구가 ‘고령화위기론’과 ‘성공적 노화’라는 기존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노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보았다. 다음의 <표 4>는 대표적인 예제와 그에 따른 연구자의 해석을 담고 있다. 고령화 위기론과 성공적노화 담론 중 더 자주 등장하는 가정은 성공적노화 담론이었다. 본 연구의 내용분석 시점이 2000년대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유사한 가정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서구적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년’개념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부족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사회노년학 연구의 일부는 노인의 수동성과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노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연구였으며, 우울, 학대, 자살생각, 스트레스, 차별, 외로움, 빈곤, 폭력 등의 연구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노인’의 정체성을 육체적 의존 및 심리정서적 의존성과 등치시킬 우려가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책담론에서처럼 편향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표 4> 연구의 가정과 그 의미

연구의 가정 (대표적인 예)	의미해석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의 보호요인을 발견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	개별적으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것을 기대
성공적 노화를 이룩하는 것은 노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킴	성공적 노화는 노인개인의 임무이고 노인의 존재는 사회의 비용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인지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함	성공적 노화를 모든 노인이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치부
연구대상 노인을 성공노화 노인과 실패노화 노인으로 구분함	낙인을 동반한 지나친 이분법

노인을 돌보는 간병인의 우울은 효 가치관을 교육시켜 해소 가능함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을 배제하고 전통적 가치의 문제로 환원
성공적 노후에는 노인개인의 노력이 중요함	성공적 노후를 노인개인의 과업으로 접근
늙어갈수록 타인에게 삶을 의존할 필요성이 커지므로, 노인들의 삶에서 사회관계는 중요함	상호의존성의 총체적 전망보다는 노인만의 문제로 해석
성공적 노화를 위해 개인적인 차원의 생존 전략 수립 및 생산능력 배양이 필요함	성공적 노후를 노인개인의 과업으로 접근
노인 우울증 예방 위해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함	개인적 해결책을 강요
직무교육, 재활교육, 기술습득, 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이 개별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함	‘생산적’이라는 개념의 무비판적 사용과 적용
노인차별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아 차별감을 줄여야 함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
활동성이 떨어지는 노인이 학대위험이 높으므로, 활동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노인학대의 원인을 노인에게서 찾음

VI. 맺음말

1997년 암스테르담 선언에서 채택된 사회의 질(social quality) 개념에 따르면(이재열, 2009에서 재인용), 바람직한 사회는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안전성),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응집성), 다양한 제도나 관계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고(포용성),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잘 발휘되는(역능성) 사회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은 자원(resources), 연대감(solidarity), 접근과 참여(access and participation), 역능화(enabling)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될 수 있다(이재열, 2009). ‘노년’과 ‘노인’ 담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회가 역동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접근자체의 문제보다는 주제선정에서 오는 편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 사회과학의 다른 어떤 분야보다, 특정 요보호 계층을 연구대상

으로 삼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문제적 시각이 두드러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분야의 균형적 시각이 더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의 예산제약 속에서 특정분야를 정책 아젠다화하기 위한 경쟁적 접근이 팽배한 시점에는 소위 “문제중심” 연구 위주로 노인과 노년에 대한 근사안적 문제 드러내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는 상반된 개념 즉, 수동적 수급자인 클라이언트 對 자율성이 강조되는 소비자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노인은 수동적 존재로서 그 이미지가 재생산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의미하는 클라이언트(client)라는 개념은 “dependent” 혹은 “follower”를 의미하는 라틴어 cliens에서 유래한 단어로서(Denhardt and Denhardt, 2007: 57), 국가나 사회복지사가 노인을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서만 접근하고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진 행위자로 보지 못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전제와 가정, 고정관념 등을 극복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노인복지, 노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대안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특정 담론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연구나 정책기조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나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을 제시함에 있어서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결과와 정책기조의 일치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노년 정체성의 연속성(continuity of identity)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며, Estes와 동료들(2003)이 지적하였듯이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세대 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연대(solidarity)를 강조하는 사회권의 시각에서 정책을 조망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선경. (2009),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원이 우울증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2): 629-643.
- 고양곤 외. (2001), “노인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노년학」, 21(1): 147- 166.

- 곽지현·이민규. (2006), “심리적 통제전략과 안녕감 간의 관계: 전생애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청년, 중년, 노년성인의 비교”, 「한국노년학」, 26(3): 565-580.
- 권중돈. (2005), “노인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의 세대통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15-33.
- 권현주 외. (2002), “대도시 노인의 사회적 지지 선호도에 관한 한일비교연구”, 「한국노년학」, 22(2): 1-16.
- 김민희·민경환. (2010), “지혜의 연령차와 중노년기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 「한국노년학」, 30(3): 947-971.
- 김수영 외. (2002),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노년학」, 22(3): 21-36.
- 김윤중. (2008), “한일 대학생의 성공적 노화 지각 비교”, 「한국노년학」, 28(3): 567-583.
- 김정석. (2005),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한국노년학」, 25(4): 1-11.
- _____. (2007), “고령화의 주요 사회이론과 담론”, 「한국노년학」, 27(3): 667-690.
- 김주현. (2007), “생활시간사용으로 본 노년기 생산적 활동”, 「한국노년학」, 27(4): 739-754.
- 나향진. (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53-70.
- _____. (2009), “아동과 노인간의 세대공동체 구현의 의미에 관한 연구: 세대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4): 1665-1683.
- 배문조. (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 송인주. (2008), “퇴직 남성노인 재취업 과정의 의미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3): 497-514.
- 신학진. (2010),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51-565.
- 양영자. (2007), “손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한 후기 여성노인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노년학」, 27(1): 235-254.
- 우해봉·윤인진. (2005), “한국노인의 경제적 지위 결정요인과 세대간 지원의 역할”, 「한국노년학」, 25(2): 73-93.

- 유경·민경환. (2005), “연령 증가에 따른 정서최적화 특성의 변화: 정서 경험과 사회적 목표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5(2): 211-222.
- 유경·이주일·강연옥·박군석. (2009), “노년기 정서 경험의 변화와 주관적 안녕감: 중단 연구 분석”, 「한국노년학」, 29(2): 729-742.
- 유희정. (2007), “농촌 사별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경험 연구”, 「한국노년학」, 27(3): 617-634.
- 윤현숙. (2003), “노부모와 자녀간의 지원교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15-28.
- 윤현숙·구분미·이강·이제연. (2010), “노인 우울증에 대한 문제해결치료(Problem-Solving Treatment)의 효과성 연구”, 「한국노년학」, 30(3): 871-894.
- 원영희 외. (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2): 131-146.
- 이가옥·이지영. (2005),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응전략에 대한 비판과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통한 대안 모색”, 「한국노년학」, 25(2): 171-193.
- 이경옥·허소영. (2008), “포커스집단을 통한 도시 노인의 삶의 질 개념 연구”, 「한국노년학」, 28(2): 269-290.
- 이경옥. (2009), “치매노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중풍노인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사례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23-1140.
- 이은주·한창완. (2009),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생들의 노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9(4): 1233-1245.
- 이인수. (2001), “대학생이 느끼는 조부모의 도움”, 「한국노년학」, 21(1): 131-145.
- 이재열. (2009),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비전,” 한국사회학회,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 성찰과 성과, 그리고 과제」, 53-96, 인간사랑.
- 이정희·안영식·윤소정. (2007), “노인과의 동거 및 노인에 대한 교육 경험이 노화지식 및 노후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7(2): 345-355.
- 이지영·이가옥. (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4(2): 193-215.
- 이지영. (2009a), “노년담론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질적 연구: 자아상과 노인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3): 1001-1024.

- _____. (2009b),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의 의미화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4): 1205-1232.
- 전혜정. (2003), “노년기 비공식적 지원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4): 143-161.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은. (2007), “세대간 지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노인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7(2): 503-518.
- 정병은·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953-970.
- 최상민·한정란. (2007), “세대공동체 봉사학습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과 시설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1): 163-177.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최혜지. (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31-49.
- 한정란. (2004), “연령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 24(3): 197-210.
- Achenbaum and Cole. (2007), “Transforming Age-Based Policies to Meet Fluid Life-Course Needs”, in Pruchno and Smyer. (eds.), *Challenges of An Aging Societ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iggs, S. (2003), “Negotiating Aging Identity: Surface, Depth, and Masquerade”, in Biggs, Lowenstein and Hendricks. (eds.), *The Need for Theory*,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 Calasanti, T. M. (2001), *Gender, Social Inequalities and Aging*, Walnut Creek.
- Denhardt and Denhardt. (2007), *The New Public Service*, M. E. Sharpe, Inc.
- Dumas and Turner. (2009), “Aging in Post-industrial Societies: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Solidarity”, in Powell and Hendricks. (eds.), *The Welfare States in Post-Industrial Society*, Springer.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Estes and Phillipson. (2003), *Social Theory, Social Policy and Ageing: a Critical Introduction*, Open University Press.

Fine, M., and C. Glendinning. (2005), "Dependence, independence or inter-dependence? Revisited the concepts of 'care' and 'dependency'", *Ageing and Society*, 25: 601-621.

Powell, J. (2006), *Social Theory and Ageing*,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Jackson, W.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Population Ageing*, Edward Elgar.

Walker, A. (1982), "Dependency and old ag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16: 115-135.

**Review on the Recent Research
in Social Gerontology**
- the Concept of “Elderly” and Topics
in the Articles from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

Choi, Eun-Young
Kim, Cheong-S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assumptions as well as implications of “elderly” in the academics of social gerontology. The study examined 256 articles in social science published in Korea Journal of Gerontology for the last 10 years with a critical eyes on their research standings. As a result, “successful ageing” as a discourse turned out to be used frequently but still lacks of consideration on the suitability to Korean context. The theme of depression, abuse and thoughts on suicide have been a main focus of the studies. While it deserves our concerns and provokde research interests, image of elderly as victims or vulnerable beings may have been reinforced. New generation-integrative approaches and future research based on continuity of identity of human life-cycle are much in need for better understanding of elderly and solidarity among generations in our society.

Key Words: Social Gerontology, Concept of Elderly, Evidence-based Policy, Generational Integration, Content Analysis